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김미영
충북대학교 박사과정

이재신[†]
충북대학교 교수

이지혜
서원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와 진로미결정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충북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38명이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의사결정유형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 진로동기를 발현시킨 후 진로결정상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의사결정 훈련을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주요어 :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미결정, 구조방정식모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재신,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성봉로 410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E-mail: jslee@chungbuk.ac.kr

서론

최근 진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되었고, 개인 뿐 아니라 가족, 학교, 사회기관, 기업 등에서 진로상담을 필요로 하는 영역도 다양해 졌다. 많은 사람들이 진로 고민을 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로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교육부(진로교육 포럼, 2014)는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중학생은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 경험을 하고, 고등학생은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는 직접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은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Super, Starishesky, Matlin, & Jordaan, 1963), 진로에 대한 명확한 탐색을 통해 진로 목표를 실행해야 하며,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해 특정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신정옥, 2011).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은 발달적 과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61.5%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진로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취업을 하거나(인크루트, 2012), 여전히 진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진로미결정 상태의 학생이 많다(심호규, 2007). 따라서 진로미결정 상태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과 대학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김계현, 2005).

진로미결정은 진로와 관련하여 꾸준히 연구되어 온 주제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진로미결정의 상태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무만족, 조직헌신, 직무수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Earl & Bright, 2007), 쉽게 회사를 사직하는 등의 역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Earl, Minbashian, Sukijjakhamin, & Bright, 2011). 또한 학업적인 문제를 동반하거나(Lucas, 1993), 무력감, 자기 확신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주목하고 부정적인 결과들을 막기 위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왔다(김은영, 2007; 유지선, 2004; Chandler & Gallagher, 1996; Gati, Krausz, & Osipow, 1996).

현재까지 진로미결정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는 자아정체감(김은진, 천성문, 2001; 박정희, 이은희, 2008; Guerra & Braungart-Rieker, 199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박정희, 이은희, 2008), 불안(박정희, 이은희, 2008; 이은희, 2011), 외적통제요소, 완벽주의(Leong & Chervinko, 1996), 진로동기(김보경, 정철영, 2012; 이현주, 2012), 의사결정유형(이보현 등, 2013; Gordon, 1981) 등이 있는데, 개인 외적인 요인은 역기능적인 가족의 지지, 상호작용 패턴, 애착(김은진, 천성문, 2001; Downing & Nauta, 2010), 진로장벽, 사회적지지(Lopez & Ann-Yi, 2006), 대처전략, 직업흥미(Betz, Klein, &

Taylor, 1996; Betz & Voyten, 1997; Argyropoulou, Sidiropoulou Dimakakou, & Besevegis., 2007)가 있다. 그 중 의사결정유형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선호하는 의사결정의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고향자, 1992),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징과 상황적인 조건을 알아보는데 매우 유용하기에 많은 연구에서 진로미결정과 인과관계를 시사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5). 의사결정유형은 진로정보를 신중하게 수집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합리적 유형, 진로에 대해서 논리적이기 보다는 상상과 정서적인 자각을 활용하는 직관적 유형, 진로 결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동적인 경향을 갖는 의존적인 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Harren, 1979).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인 결과를 보이고(고향자, 2000; 남숙경, 이상민, 이상희, 2008; 변은주, 1999), 또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권형자, 1996; 고향자, 2000). 한편,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진로미결정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들 가운데 몇몇 연구들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2008)의 메타연구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은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 최정윤(2005)의 연구에서도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진로미결정과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렇게 두 변인 간 관계가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보다는 다른 요인이 중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김봉환, 김계현, 1995; 정애경 등,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인을 탐색하고 이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진로관련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 및 자기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Hackett & Betz, 1981).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tz & Voyten, 1997; Betz & Luzzo, 1996). 또한 이기학, 이학주(2001)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강한 예측변인이라고 보고하였고, 김종운, 박성실(2011)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Mau(2000)는 미국과 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에서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가 유의미함을 보고하였고, 이해경, 김수연, 김혜원(2013)의 연구에

서도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고향자(2000), 송소원(2001), 정진선(2002)도 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여 의사결정유형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의사결정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진로미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단일변인들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 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진로동기는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자신과 환경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역경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인간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개인 내적인 힘이다(김보경, 정철영, 2012; Guay, Ratelle, Senécal, Larose, & Deschênes, 2006). 진로동기모델에 의하면 진로동기는 상황적인 조건이 개인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London, 1983),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중재하는 변인으로서 효과적일 수 있다(Feldman, 2003)고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동기가 진로미결정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진로동기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은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즉 진로동기는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 의사결정유형과 진로동기의 직접적인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지만,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동기를 높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Salili와 Lai(2003)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진로동기가 의사결정유형에도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과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결정효능감과 함께 본 연구는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진로동기 역시 매개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는 서로 독립된 변인이 아닌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현주(201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동기의 하위요인들은 자아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진로동기가 자아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밖에 김보경, 정철영(2012), 신윤정(2013)의 연구에서도 동기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진로가 인지적 측면의 역할이 중요(이순희, 손은령, 2013; Betz & Hackett, 1981;)한 것에 초점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유형을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그리고 진로미결정을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내생변수 중 진로미결정은 최종 종속변수에 해당하고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동기는 매개변수에 해당한다. 즉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구조적 관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

한 구조적 관계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진로미결정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데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학생을 위한 통합적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와 진로미결정간의 구조적 관계는 타당한가? 둘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에 소재한 2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38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응답자 배경을 살펴보면 전체 238명 중 남학생은 109명(45.8%), 여학생은 129명(54.2%)이었고, 학년별로 1학년은 93명(39.1%), 2학년은 66명(27.8%), 3학년은 50명(21.0%), 4학년은 29명(12.2%)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의사결정유형 척도

본 연구는 Harren(1984)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를 바탕으로 고향자(1992)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의사결정유형 척도를 김송환(1996)이 5단계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요인별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Cronbach's α 는 합리적 유형 .84, 직관적 유형 .80, 의존적 유형 .83이었다.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etz 외(1996)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SF)를 이기학, 이학주(2000)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이은경(2000)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 4가

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목표선택 .74, 직업정보 .69, 문제해결 .82, 미래계획 .78이었고 전체 .79로 나타났다.

다. 진로동기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Noe, Noe, & Bachhuber(1990), London(1993), Day와 Allen(2004)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김보경(20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은 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는 진로정체감 .83, 진로통찰력 .78, 진로탄력성 .81, 전체 .86으로 나타났다.

라. 진로미결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Tak과 Lee(2003)가 개발한 한국판 진로미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부족(6문항), 자기명확성부족(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4문항), 필요성 인식 부족(4문항), 외적 장애(4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의 상태로 해석된다. Cronbach's α 는 직업정보부족 .76, 자기명확성 부족 .78, 우유부단한 성격 .80, 필요성인식 부족 .82, 외적장애 .8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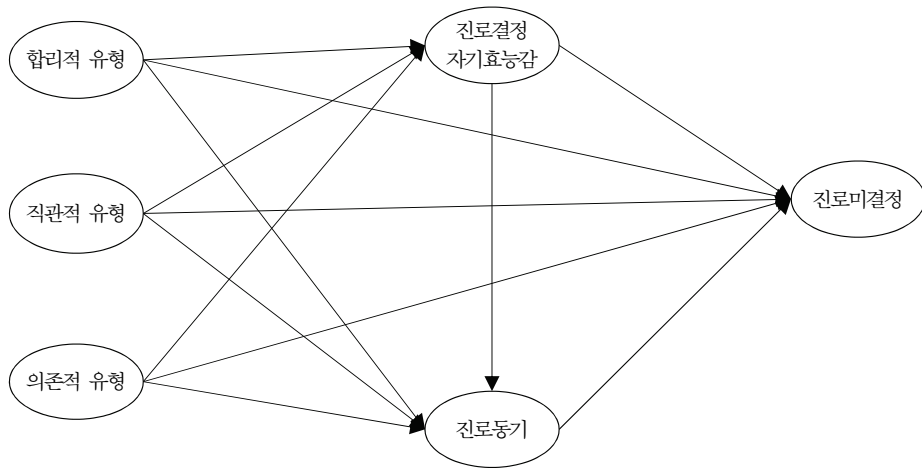
둘째, 의사결정 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미결정의 상호상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을 활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AMOS 20.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계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χ^2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GFI, TL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는 .05이하라면 표본과 모형의 오류가 아주 작은 매우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하고, .05에서 .08사이면 오류의 정도가 적절한 정도로 괜찮은 모형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GFI와

TLI값의 기준은 .9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수백, 2009).

넷째, 가설적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하여 그 값이 4이상인 교정지수를 가진 경로를 추가하는 식으로 모형수정을 시도하여 모델의 간명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합 모형을 탐색하고 각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의의도와 설명력(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중심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구조모형의 모든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여, 근사적인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다(김계수, 2007).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4. 가설모형

본 연구에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외생변수는 의사결정유형인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며, 내생변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미결정이다. 즉, 의사결정유형은 독립변수에 해당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는 매개변수, 진로미결정은 최종 종속변수에 해당한다.

연구결과

1.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관측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직관적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대부분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의사결정 유형 중에서도 합리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미결정은 상호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의사결정 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045	1												
3.	.083	.281**	1											
4.	.398**	.080	-.265**	1										
5.	.346**	.035	-.151**	.707**	1									
6.	.103	-.004	-.077**	.159**	.155**	1								
7.	.325**	.108	-.132**	.685**	.635**	.171**	1							
8.	.348**	.087	-.196**	.824**	.604**	.121	.587	1						
9.	.397**	.102	-.174**	.654**	.664**	.194**	.623**	.669**	1					
10.	.456**	.101	-.183**	.665**	.583**	.203**	.636**	.638**	.714**	1				
11.	-.257**	.109	.373**	-.595**	-.594**	-.079	-.485**	-.557**	-.569**	-.498**	1			
12.	-.215**	.039	.410**	-.671**	-.489**	-.079	-.525**	-.631**	-.581**	-.521**	.688**	1		
13.	-.162**	.058	.541**	-.495**	-.362**	-.100	-.396**	-.439**	-.369**	-.511**	.607**	.607**	1	
14.	-.208**	.162**	.316**	-.440**	-.353**	-.002	-.280**	-.422**	-.309**	-.265**	.522**	.580**	.421**	1
15.	-.148**	.067	.284**	-.377**	-.292**	-.063	-.186**	-.311**	-.265**	-.256**	.494**	.418**	.474**	.395**

** $p < .01$

주. 1. 합리적 유형, 2. 직관적 유형, 3. 의존적 유형, 4. 목표선택, 5. 직업정보, 6. 문제해결, 7. 미래계획, 8. 진로정체감, 9. 진로통찰력, 10. 진로탄력성, 11. 직업정보부족, 12. 자기명확성부족, 13. 우유부단한성격, 14. 필요인식부족, 15. 외적장애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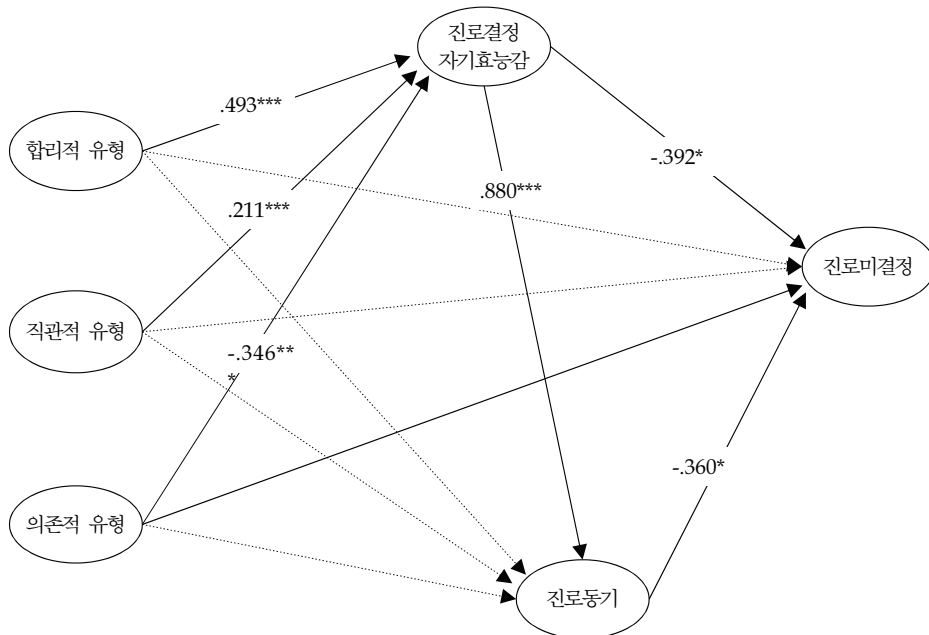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기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RMSEA

값과 TLI 값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수정지수가 4를 초과한 오차항 e1과 e5의 문항내용을 확인한 후, 공분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김계수, 2007)되어 양방향 화살표로 연결하였다. 이를 다시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185.370$, $df=77$, $p=.000$, $RMSEA=.077$, $GFI=.945$, $TLI=.923$ 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각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RMSEA	GFI	TLI
가설모형	238.494 ($df=78$, $p=.000$)	.093	.935	.887
최종모형	185.370 ($df=77$, $p=.000$)	.077	.945	.923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인과적 관계에서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은 진로동기와 진로미결정에, 그리고 의존적 유형은 진로동기에 이르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주. 실선으로 된 경로는 유의미한 경로를 의미하고, 점선으로 된 경로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2] 최종 모형

구체적으로,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은 진로동기와 진로미결정을 제외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493, p=.000; \beta=.211, p=.00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존적 유형은 진로동기를 제외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346, p=.000$)과 진로미결정($\beta=.320, p=.00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beta=.880, p=.000$)와 진로미결정($\beta=-.392, p=.025$)에, 마지막으로 진로동기는 진로미결정($\beta=-.360, p=.042$)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기 위한 총효과(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해는 표 3과 같다. 우선 합리적 유형은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beta=.493$, 진로동기에 $\beta=.515$, 진로미결정에 $\beta=-.324$ 의 총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유형은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beta=.211$, 진로동기에 $\beta=.227$, 진로미결정에 $\beta=-.071$ 의 총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유형은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beta=-.346$, 진로동기에 $\beta=-.313$, 진로미결정에 $\beta=.568$ 의 총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결정효능감은 유의수준에서 진로동기에 $\beta=.880$, 진로미결정에 $\beta=-.709$ 의 총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진로동기는 진로미결정에 $\beta=-.360$ 의 총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의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합리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93***	-	.493***
합리적 유형 → 진로동기	.081	.434*	.515*
합리적 유형 → 진로미결정	.055	-.379*	-.324*
직관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11***	-	.211***
직관적 유형 → 진로동기	.041	.186*	.227*
직관적 유형 → 진로미결정	.093	-.164*	-.071*
의존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6***	-	-.346***
의존적 유형 → 진로동기	-.008	-.305*	-.313*
의존적 유형 → 진로미결정	.320***	.248*	.56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동기	.880***	-	.88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미결정	-.392*	-.317	-.709*
진로동기 → 진로미결정	-.360*	-	-.360*

* $p<.05$, *** $p<.001$

3. 매개효과 검증

의사결정유형인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표 3에서와 같이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상세 분해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개효과를 알 수 있는 간접효과는 잠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곱한 것이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중에서 ‘합리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미결정’의 경로가 -.193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합리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동기 → 진로미결정’의 경로가 간접효과 -.156이었다. 간접효과가 가장 작은 경로는 -.067의 효과를 가진 ‘직관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동기 → 진로미결정’의 경로였다. 그리고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모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서 바로 진로미결정으로 이르는 경로가 진로동기를 거치는 경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 모두가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경로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경로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크기
합리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미결정	-.193
합리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동기 → 진로미결정	-.156
직관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미결정	-.083
직관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동기 → 진로미결정	-.067
의존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미결정	.136
의존적 유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동기 → 진로미결정	.110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그리고 진로미결정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chi^2=185.370$, $df=77$, $p=.000$, $RMSEA=.077$, $GFI=.945$, $TLI=.923$ 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를 매개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타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각각의 단일 변수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체 변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은 진로미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의존적 유형은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존적 유형은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고향자, 2000; 남숙경 외, 2008; 변은주, 1999; Harren, 1979)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매개변수로 투입되면서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에 간접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직접적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한편, 의존적 유형은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보여서 의존적 유형이 진로미결정과 더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Mau, 2000)를 지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결정유형은 진로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도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이기학, 이학주, 2000; 이현주, 2012)과 결과를 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andura(1986), 이현주(2011)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일치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모두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받아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것과는 달리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은 진로동기를 직접매개하지 않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를 거쳐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결정유형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결정유형에 따라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에 적극성을 보이는 동기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고향자, 2000; 김민정, 김봉환, 2014; 송소원, 2001; Blustein & Phillips, 1990; Mau & Jepsen, 199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 상태를 높이는 것은 의사결정유형이 의존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직관적으로 발달되어 형성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동기를 높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Salili와 Lai(2003)의 보고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자아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진로동기가 중재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한 이현주(2012)의 연구와는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조적 관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매개효과는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결정유형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를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기능의 의사결정유형을 발달하도록 돕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다음으로 진로동기를 갖도록 하는 상담 프로그램 및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으로 인한 고민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합리적이거나,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지되어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진로에 몰입하도록 진로동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문제는 일련의 과정(process)이므로 각 요인의 강도나 영향에 따라 양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상호 연결된 경로로써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때만이 적절한 개인과 조력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최진영, 이광호(2012)의 제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로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방적인 지식 전달 보다는 학생이 자신과 관련이 높은 다양한 상황을 직접 접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선영, 2007). 둘째, 자신의 수행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진로동기는, 선택한 진로가 달성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예견을 의미하는 것이므로(Scott & Church, 2001), 일에서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보는 활동이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닌, 자기효능감과 내적인 동기 함양을 하는 구체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극대화 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신윤정, 2013). 셋째, 의사결정유형 및 진로미결정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성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의 하위요인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지적, 정서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적응적인 강점 탐색, 열정 등을 향상시키는 개입과 스스로 진로관련 과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조력해 주는 것(신윤정, 2013; 조지연, 2012)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을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를 통해 이해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학년, 전공,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개인내적

인 요인과 함께, 환경이나 행동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진로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과 상관이 있다고 밝혀진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만 고려하여 연구 하였으나 대학생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을 첨가 시킨다면 대학생 진로미결정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미결정의 기능적, 역기능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특성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향자 (2000).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및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 109-124.
- 권형자 (1996).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연구. 학생생활연구, 11. 관동대학교. 15-36.
- 김계수 (2007). NEW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계현 (2005).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효능감, 합리적의사결정 및 진로탐색 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7(3), 27-45.
- 김보경, 정철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개인이 인식한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2), 49-71.
- 김봉환, 김계현 (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 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20-43.
- 김선영 (2007). 합리적의사결정 능력 신장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경제단원 내용 재구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송환 (1996).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7).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79-1100.
-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4(1), 147-162.

- 김중운, 박성실 (2011).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4), 209-229.
- 남숙경, 이상민, 이상희 (2008). 진로상담: 한국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 일 변화 검증연구. *상담학연구*, 9(2), 1047-1062.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박정희,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3-123.
- 변은주 (1999).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진로 미 결정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소원 (2001).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학생생활연구(학생지도연구)*, 14, 1-22.
-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신정욱 (2011).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 19(2), 109-141.
- 심호규 (2007). 부모의 진로기대와 애착수준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보현, 두훈, 이은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3). 대학생의 특성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있어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383-1400.
-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525-2544.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 (2011). 경험논문: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 및 자아정체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2), 401-425.
- 인크루트 (2015). 2012. 1.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생들 실태조사 결과.
<http://blog.naver.com/socialpress/140151298221>에서 검색
- 이해경, 김수연, 김혜원 (2013). 남녀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불안이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156.

- 이현주 (2011).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자아핸디캡전략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3), 21-39.
- 이현주 (2012). 완벽주의와 학습지연전략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자아핸디캡전략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28(3), 91-112.
-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상담: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 정진선 (2002).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및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지연 (2012). 긍정심리기반 강점 중심 코칭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로교육포럼 (2014). 학교급별 맞춤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진로교육 방법론. 서울: 진로교육포럼 자료집.
- 최정운 (2005).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영, 이광호 (2012).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9), 189-213.
- Argyropoulou, E. P., Sidiropoulou Dimakakou, D., & Besevegis, E. G. (2007). Generalized self efficacy, coping, career indecision, and vocational choices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greece: Implications for career guidance practitioner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4), 316-33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tz, N. E.,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etz, N. E., & Luzzo, D. A.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4), 413-428.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lustein, D. L., & Phillips, S. D. (1990). Relation between ego identity statuses and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2), 160.
- Chandler, L. A., & Gallagher, R. P. (1996). Developing a taxonomy for problems seen at a

-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9(1), 4-12.
- Day, R., & Allen, T. D.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self-efficacy with protégé 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1), 72-91.
- Downing, H. M., & Nauta, M. M. (2010). Separation-individuation, exploration, and identity diffusion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3), 207-227.
- Earl, J. K., & Bright, J. E.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tatus and important work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2), 233-246.
- Earl, J. K., Minbashian, A., Sukijakhamin, A., & Bright, J. E. (2011). Career decision status as a predictor of resignation behavior five years lat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2), 248-252.
- Feldman, D. C. (2003).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arly career indecision among young adult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 499 - 531.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
- Gordon, V. N. (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7), 433-439.
- Guay, F., Ratelle, C. F., Senécal, C., Larose, S., & Deschê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235-251.
- Guerra, A. L., & Braungart Rieker, J. M. (1999).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parental relationship factor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3), 255-266.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18, 326-339.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Harren, V. A.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Leong, F. T., & Chervinko, S.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3), 315-329.

-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4), 620-630.
- London, M. (1993).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otivation, empowerment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6(1), 55-69.
- Lopez, F. G., & Ann-Yi, S. (2006).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in three racial/ethnic group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29-46.
- Lucas, M. S. (1993).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40.
- Mau, W. C. (2000). Cultural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3), 365-378.
- Mau, W. C., & Jepsen, D. A. (1992). Effects of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in using formal decision-making strategies to choose a college maj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2), 185.
- Noe, R. A., Noe, A. W., & Bachhuber, J. A. (1990).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3), 340-356.
- Salili, F., & Lai, M. K. (2003). Learning and motivation of Chinese students in Hong Kong: A longitudinal study of contextual influences on students' achievement orientation and performa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0(1), 51-70.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r, J. P.,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88-298.
- Scott, D. J., & Church, A. T. (2001). Separation/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328-347.
- Super, D. E., Starishesky, R., Matlin, N. & Jordaan, J. P. (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ak, J.,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Relationship among types of decision mak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indecision of college students

Kim, Mi Young Lee, Jae Shin Lee, Ji Ha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eoWon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types of decision mak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indecision of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 study tried to examine whether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otivation have any mediating effects on career indecision. 238 college students attending the colleges located in Chungbuk were sampl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t of the final model explain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type of decision mak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indecision for college students was found out to be compliant with the standards. Second, the study was made to find out how the type of decision making affects the career indecision and how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otivation have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 showed that the type of decision making enhances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to expose the career motivation and then makes the enhanced decision making status. Especially, it was shown that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has the largest mediating effect. Accordingly, the college students shall get the training in a way that when they make the decision, they are not dependent but are reasonable and intuitive. Then, they could make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enhance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improved. The long term and systematic career program shall be designed using such procedure.

Key words: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career indeci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